

두 인생

김 환 근 (본회 이사)

성경의 창세기(12:1-15:1)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걸어진 두 인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한 인생으로, 롯은 실패한 인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칙을 자신의 인생의 법칙으로 삼아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세상의 삶의 법칙을 자기 법칙으로 삼아 자기중심으로, 사람의 뜻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조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반면에 롯은 이 모든 것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루터럼 자기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호스피스는 사람의 뜻을 세우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생각지 아니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만 가지다가 결국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므로 당연히 그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를 취할 경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왕의 양보로 된 것이라 생각하여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소돔왕에게 돌리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때문에 자신이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물질을 양보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해치는 원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시며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호스피스를 통해서 특히 조심할 것은 물질과 명예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어떤 이해관계나 대가를 바라는 봉사가 된다면 이는 봉사가 아니라 샅이 되는 것입니다. 한호협 회원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을 소돔왕에게 다 양보하면서도 자기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함으로써 자타를 공정히 하여 자기 것만 단속했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월권이나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 대해서 월권함으로 공정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맺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환자와 가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자의 위치를 벗어나는 행위는 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 자기만의 이해관계에 따른 활동은 자제되고 지역 내의 타 호스피스 기관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른 호스피스 기관과 사역자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개별기관의 호스피스 교육은 통합과 조정이 필

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걸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결과를 맺고 롯의 길을 걸으면 롯과 같은 결과를 맺습니다. 2003년에는 우리 한호협 회원들 모두가 호스피스와 아브라함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상강좌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연·재·순·서

1. 생명윤리의 4대원칙

-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 2) 악행 금지의 원칙
- 3) 선행의 원칙
- 4) 정의의 원칙

2. 환자 권리와 호스피스

3. 안락사와 호스피스

이것은 동기의 문제이다. 의사는 때로 어려운 결정들에 직면한다. 일단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장치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체험을 연장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믿게 되면, 그는 이례적인 수단들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환자를 편안하게 해 주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자연의 순리에 맡길 수 있다. 이것은 환자와 의사, 환자 가족과 의사의 신뢰관계 속에서 의사들이 지난 세월동안 행해 왔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존엄성을 유지한 죽음"이다. 이것은 안락사를 단지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 아니다.

필자는 내과 의사로서 중환자를 치료하다보면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말기 암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경우 과연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할 것인가? 수년째 식물인간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는 혼수상태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의사협회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동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사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는 뇌사 상태, 말기 암환자 등 극히 소수의 경우에 한정되는 상황이다.

둘째는 의식이 있었던 때에 명시한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치료중단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의사 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며 병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임종이 가까운 말기 암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계속 인공호흡기로 하루의 수명을 더 연장하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장이며 의료집착행위라 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무익한 치료는 반대한다.

3) 안락사의 대안 - 호스피스

물론 인간에게는 생명권과 아울러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인도 캘커타 에는 마더 테레사가 세운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병들어 쓰레기더미 옆에서 버려진 채 죽어 가는 행여 환자들을 실어다가 따뜻하게 돌보며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그곳인 것이다. 자칫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존엄하게 죽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점이다. 죽음의 시점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존엄한 죽음에 오히려 반하는